

# 간호과학연구소

## 1. 사업 배경

### □ 개요

- 사업명: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 및 북한 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
- 기관명: 간호과학연구소

###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세부과제 1: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심층분석과 통일후 간호인력 교육체계의 기본방향 구상

- 현재 남북한 건강수준의 격차는 평균 기대수명 10년, 영유아 사망률 7배, 모성사망비 8배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를 고려하면,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 의료 제공이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
- 통일 후 일차의료 제공의 가장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북한에서 자체 수급하는 간호인력이 될 것이지만 현재 북한의 간호교육 수준은 남한과 상당한 격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분석과 해결방안 필요
- 북한의 간호인력 교육체계에 대한 자료는 주로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하여 북한에서 경험과 근무시기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일관성이 부족하며, 간호인력 교육에 대한 조사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바 있으나, 교과내용과 직무수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 교육기간, 직무범위, 필요도 등을 고려 시 통일 후 조산원과 준의를 간호인력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간호원, 조산원, 준의의 교육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남한의 간호교육체계와 비교하여 이를 기반으로 북한 간호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체계의 기본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설계가 필요함.

- 북한의 간호교육수준 향상은 곧 북한주민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통일 비용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세부과제 2: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

- 학령기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 대학진학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진학률과 함께 북한이탈 대학생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졸업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중도탈락의 주된 이유는 남북한 학습방법과 문화 차이, 기초학력 부족, 전공학과에 대한 정보부족 등 학업상의 이유, 우울, 불안, 열등감, 무력감 등의 정서적 이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음.
- 북한이탈 대학생들 중에서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과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간호학 전공 지원자의 숫자가 특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위한 특화된 지원체계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전무함.
- 의료 인력의 적정 공급은 통일 이후 보건의료체계의 안정과 사회통합의 필수 요소이며, 한국에서 성장한 북한이탈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의료 인력임. 북한이탈 간호 대학생이 통일 후 핵심 의료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 ○ 목적

- **세부과제1:**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포괄적·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통일 후 북한 간호교육수준과 나아가 간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교육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세부과제2:** 북한이탈 간호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의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이탈 대학생의 중도탈락의 주요 원인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북한이탈 예비대학생을 위한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는 것임.

## □ 기대효과

- 통일 대비 북한 간호인력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제시
  - 선행연구에서 북한의 간호원 교육체계 분석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나 북한의 간호원은 남한의 간호사와 상응하지 않음.
  - 현재 기능이나 직무의 측면에서 볼 때 통일 초기 실질적인 간호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준의와 조산원의 교육체계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통일 후 북한 간호교육체계 개발의 효과성 증진
  - 북한의 간호인력 범위를 기존의 간호원에서 준의, 조산원으로 확장함으로써 통일 후 간호인력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현실적·합리적 방안 도출 가능
  - 다기관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의 연구기반 구축에 기여
- 통일 후 북한 간호교육수준 향상의 기틀 제공
  - 그동안 남북한 간호교육통합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있었으나 통합이전에 북한의 간호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는 부재함.
  - 특히, 본 연구는 북한 간호인력의 자체 수급을 전제로 한 최초의 북한 간호연구로서 통일 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효과적인 북한 간호수준 향상 방안이 될 것임.
- 통일 후 핵심 의료 인력 양성의 발판 마련
  -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이 남북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간호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이 우선되어야 함.
  - 남한에서 간호인력으로 성장한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은 통일 이후 핵심 의료인력으로서 의료발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을 위한 역량증진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는 한국 간호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2. 사업 내용 및 결과

### □ 주요 사업 내용

#### 세부과제 1: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심층분석과 통일후 간호인력 교육체계의 기본방향 구상

##### ○ 문헌조사

- 정부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자료 등 문헌조사
- 문헌조사를 통해 기존에 확인·분석된 북한 간호원, 조산원, 준의 양성 체계에 대한 자료 수집하여 재구성

##### ○ 북한 거주시 의료인 또는 북한 이탈 후 남한 간호교육 경험자 면담

- 간호원, 조산원, 준의 교육체계의 재구성과 분석
- 북한 간호원, 조산원, 준의 교육체계와 남한 간호교육체계 비교분석
- 북한 간호교육체계에 적용 가능한 남한 간호교육내용 도출

##### ○ 중국 간호대학의 조선족 간호교육 경험 분석 및 공동 워크숍 개최

- 중국 간호대학의 조선족 학생 대상 간호교육의 경험 분석과 결과 공유
- 통일 후 적용 가능한 북한 간호인력 교육체계 논의
- 통일 후 교수자로서 북한 간호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개발 구상

##### ○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 창립 및 학술세미나 개최

- 간호분야 통일준비의 기반을 제공하고 통일간호연구 네트워크 구축
- 주기적인 학술세미나와 통일간호교육 개최를 통해 통일간호에 대한 인식 제고

##### ○ 「북한 의료현장 의사소통 및 기본간호」 책자 발간

- 북한 간호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한 간호교육, 실무 통합을 위한 기초 제공

## 세부과제 2: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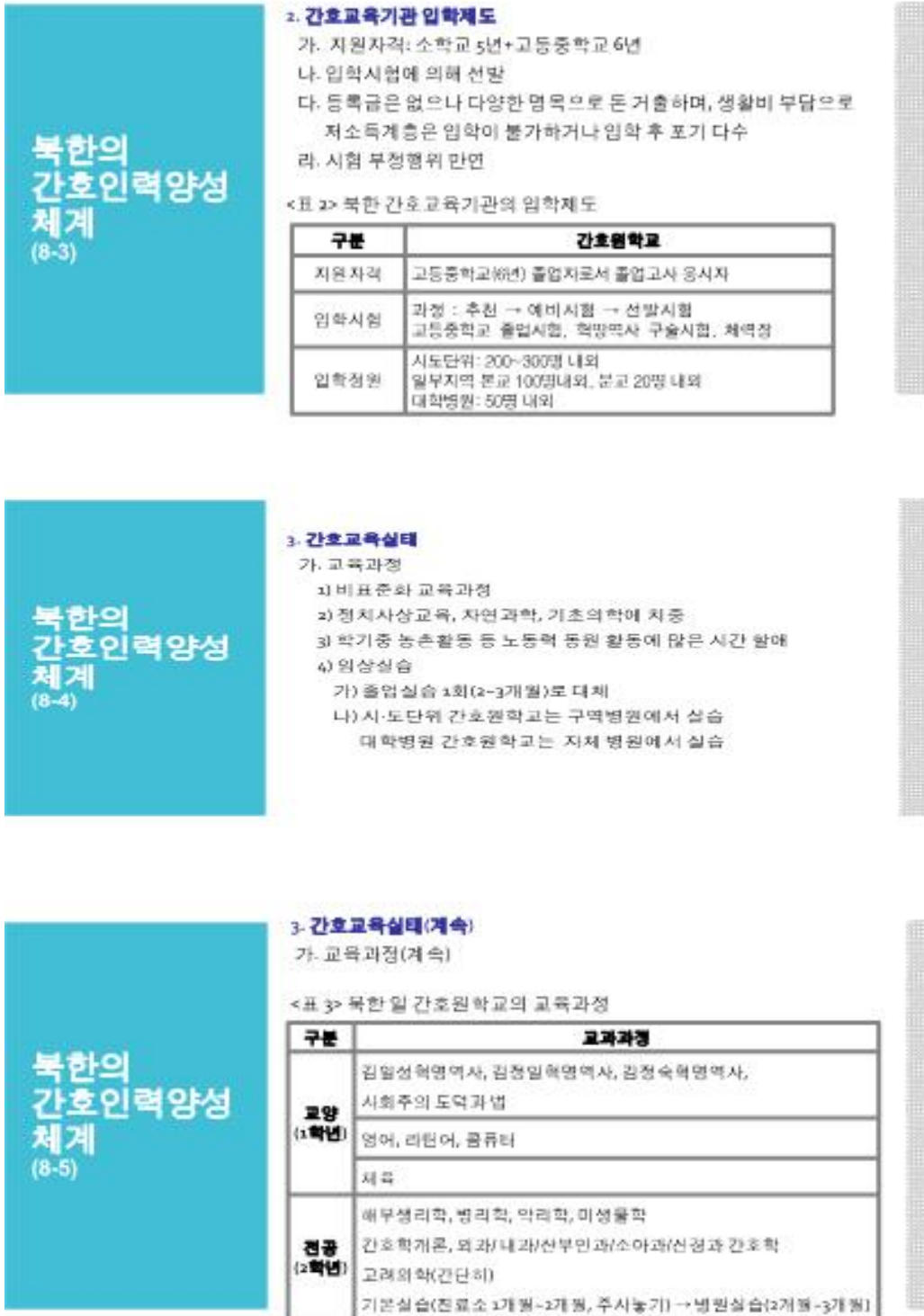
-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 문헌조사: 북한이탈 대학생의 현황과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정부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보고서, 통계자료, 논문 조사
  - 북한이탈 학생 교육 관련 전문가 자문
  - 북한이탈 간호 대학생/졸업생 면담 조사
-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학과 박람회) 개발 및 시행
-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북한이탈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 탐색을 위한 사례연구

## □ 사업별 구체적 추진 내용 및 결과

### 세부과제 1: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의 심층분석과 통일후 간호인력 교육체계의 기본방향 구상

- 포괄적 문헌조사 및 북한이탈주민(재북의료인, 남한간호교육 경험자) 면담
  - 재북 당시 간호원 2인, 준의 1인, 조산원 1인, 북한 간호교육 경험자 1인 면담을 시행함('19.7.~'19.10.).
  -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후 한국 유학생 15인 면담
  - 문헌조사, 면담결과를 바탕으로 북한간호인력 양성체계 분석, 통일 대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 방향 도출(그림 1)

그림 1. 북한간호인력 양성체계 분석 및 통일대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방향(일부)



**북한의  
간호인력양성  
체계  
(8-6)**

**3- 간호교육실태(계속)**

가. 교육과정(계속)

<표 4> 북한 일 간호원학교의 수업편성

구분	내용
학년당 학급수	시도단위 : 6개 학급, 일부 지역은 분교 2학급, 분교 1학급 대학병원 : 1개~2개 학급
학급당 인원수	일반적으로 40~60명, 분교 20명 내외 대학병원 간호원학교 25명 내외
수업일수	주 6일제(월~토)
수업시간	08:00~13:00 문명(오후에는 주로 노동력 동원 활동 참가) 과목당 주 1회 수업 1회 수업시간 90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  
(4-1)**


**1. 고려사항**

- 가. 의사소통: 의학용어, 증상표현, 영어(외리어), 일반대화
- 나. 간호교육과정의 양적, 질적 차이
  - : 4년 학사과정, 전문화/세분화
- 다. 건강격차, 질병구조의 차이
  - : 평균수명 10년, 영유아 사망률 7배, 모성사망비 8배
- 라. 통일한국 간호사 역할의 변화
  - : 병원, 급성기 중심 → 지역사회, 일차간호 중심
- 마. 북한 간호교육과정, 보건의료체계, 사회문화 특성 일부 인정
  - : 예방의학, 고려의학 등

- 북한지역 간호인력 수급 실태와 통일 이후 수급 정책 관련 논문 작성

- 논문 1: 김진현, 정유미, 최희승, 채선미, & 정재원. (2019).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 추계. 간호행정학회지, 25(4), 353-361.(그림 2)

그림 2. 논문 1 제시



ORIGINAL ARTICLE

Check for updates

ISSN 1225-9330 (Print) | ISSN 2288-4955 (Online)

J Korean Acad Nurs Adm (간호행정학회지) Vol. 25 No. 4. 353-361

<https://doi.org/10.11111/jkana.2019.25.4.353>

---

##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 추계

김진현<sup>1</sup> · 정유미<sup>2</sup> · 최희승<sup>1</sup> · 채선미<sup>1</sup> · 정재원<sup>1</sup> · 정나라<sup>3</sup> · 박미희<sup>3</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sup>1</sup>, 국군간호사관학교<sup>2</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sup>3</sup>

---

### An Estima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Primary Healthcare Nursing Workforce in the North Korean Region after Korean Reunification

Kim, Jinhyun<sup>1</sup> · Jung, Yoomi<sup>2</sup> · Choi, Heeseung<sup>1</sup> · Chae, Sun-Mi<sup>1</sup> · Chung, Chae Weon<sup>1</sup> · Chung, Nary<sup>3</sup> · Piao, Meihua<sup>3</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2</sup>Korea Armed Forces Nursing School  
<sup>3</sup>Graduate School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stimate supply and demand for nursing workforce to provide community-based primary healthcare in the North Korean region to cost-efficiently narrow the health gap between the two Koreas in case of a Korean reunification. **Methods:** To understand the nursing education system and current state of nursing workforce in North Korea, the authors interviewed six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worked as nurses in North Korea. Based on the interview results and literature review, the supply and demand for the primary healthcare nursing workforce that would be needed after Korean reunification were estimated. **Results:** Currently, a total of 2,100 to 2,700 North Korean nurses were estimated to have graduated from nursing schools with a 2 year curriculum or completed 6-month military nurse training courses every year. The projected number of nurses in demand to provide primary health care ranged from 84,160 to 105,200 and the shortage would be between 31,586 and 52,626. **Conclusion:** An active utilization of the North Korean nursing workforce to improve the health of North Koreans after reunification will be the best way to reduce the reunification cost which will be inflicted mainly on South Korea.

**Key Word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orean reunification; Nursing workforce; Primary healthcare; Supply and demand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문정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각 계층별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고 있

다. 이에 따라 오랜 시간 단론으로 이어졌던 통일이라는 화두가 다시 한번 급부상하며 사회 각 분야별로 보다 진지하고 구체적인 고민과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현재, 남북한 국민 총소득은 약 40배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은 20배 이상 차이나는 [1] 경제적 격차로 인해 통일의 충격과 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건강수준의 격차는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

**주요어:** 북한, 일차보건의료, 간호인력, 수요와 공급, 통일

**Corresponding author:** Jung, Yoomi  
 Korea Armed Forces Nursing School, 90 Jaun-ro, Yuseong-gu, Daejeon 34099, Korea.  
 Tel: +82-42-878-4530, Fax: +82-42-861-8132, E-mail: ymjungbest@kafna.ac.kr

- 이 논문은 2019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책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Funding for this article was provided by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project "Laying the Groundwork for Unification".

Received: Apr 11, 2019 | Revised: May 18, 2019 | Accepted: May 28, 2019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019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http://www.kanad.or.kr>



- 논문 2: 정유미, 김진현, 이순영, & 유정아. (2019). 통일초기 육군 간호장교 역할과 인력수요 추계. 군진간호연구, 37(2), 25-38.(그림 3)

### 그림 3. 논문 2 제시

## 통일초기 육군 간호장교 역할과 인력수요 추계

정유미<sup>1</sup> · 김진현<sup>2</sup> · 이순영<sup>3</sup> · 유정아<sup>4</sup>

<sup>1</sup>국군간호사관학교 부교수, <sup>2</sup>서울대학교간호대학 교수, <sup>3</sup>국방대학교 안보리정 교육생, <sup>4</sup>육군본부 피우실 보건간호장교

### ROK Army Nurse Officers' Anticipated Roles and an Estimation of Demand for Their Workforce during the Early Stage of Korean Reunification

Jung, Yoomi<sup>1</sup> · Kim, Jinhyun<sup>2</sup> · Lee, Soon-Young<sup>3</sup> · Yu, Jeong A<sup>4</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sup>2</sup>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up>3</sup>National Security Cours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up>4</sup>Public Health Officer, ROK Army Headquarters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Purpose:** This study was to predict the healthcare service in need, develop anticipated roles of ROK army nurse officers and estimate the demand for their workforce during the early stage of a Korean reunification. **Method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health status, predict the healthcare service to be delivered and ROK army nurse officers' roles in need, and estimated the demand for the role. **Results:** During the early stage of reunification, community based primary healthcare will be in need in the North Korean region. ROK army nurse officers can be deployed to the four most vulnerable and isolated North Korean provinces to re-train nurses, build a health database, enlighten girls, and to screen and manage mental health of the residents. For the service, an estimated number of ROK army nurse ranged from 494 to 742, if one to deploy per 15,000 and 10,000 residents each, and from 988 to 1,484, if two to deploy. **Conclusion:** ROK army nurse officers are rightly capable of completing their mission and will contribute to decreasing healthcare cost and to establishing the basis for the reunified Korea during the early stage of reunification.

**Keywords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orean reunification, Nurse officer, Nursing workforce, Supply and demand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한반도는 분단 이후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른 체제를 유지하며 긴장과 일시적 평화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비교적 연소했던 김정일이 정권유 이으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선대보다 선군정치를 강화하며 군사를 국사(國事)의 제일로 내세운

군력(軍力) 강화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1]. 한때 김정일의 공포정치로 인한 엘리트 계층의 이반 가능성 증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외부정보 유입으로 인한 자유화의 바람 등으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였으나 [2], 2018년 4월 27일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면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남북관계가 긴장이 고조될 때도, 반대로 긴장이 완화될 때도 아이러니하게 항상 통일을 대비하여야 했다. 특히 요즘과 같이 한반도의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통일이 언제

**주요어 :** 북한, 통일, 간호장교, 간호인력, 수요와 공급

\* 본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Address reprint request to : Yu, Jeong A

P.O. Box 501-19, 663, Gyeongdae-ro, Sindon-myeon,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el, 82-42-550-1624, E-mail : sasosim1@daum.net

투고일 : 2019. 9. 18./ 심사완료일 : 2019. 9. 22./ 수정일 : 2019. 9. 23. / 게재확정일 : 2019. 9. 26.

- 포괄적 문헌조사 및 북한이탈주민 면담에 대한 성과
  - 북한 간호인력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간호인력 활용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간호 중심의 담론 기반 마련

○ 제3회 통일군간호포럼 지정토론 참석(사진 1)

- 일시/장소: '19.08.26.(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포럼주제/토론자: 새로운 남북관계와 군간호 패러다임의 전환/ 정유미 교수

사진 1. 제3회 통일군간호포럼 지정토론 참석(정유미 교수)



○ 2019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 연합학술대회 발표

- 일시/장소: '19.11.26.(화)/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주제/발표자:

- 1) 세부과제1: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유미 교수(그림 4)
- 2) 세부과제2: 북한이탈 학생 지원프로그램/ 최희승 교수(그림 5)

그림 4.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정유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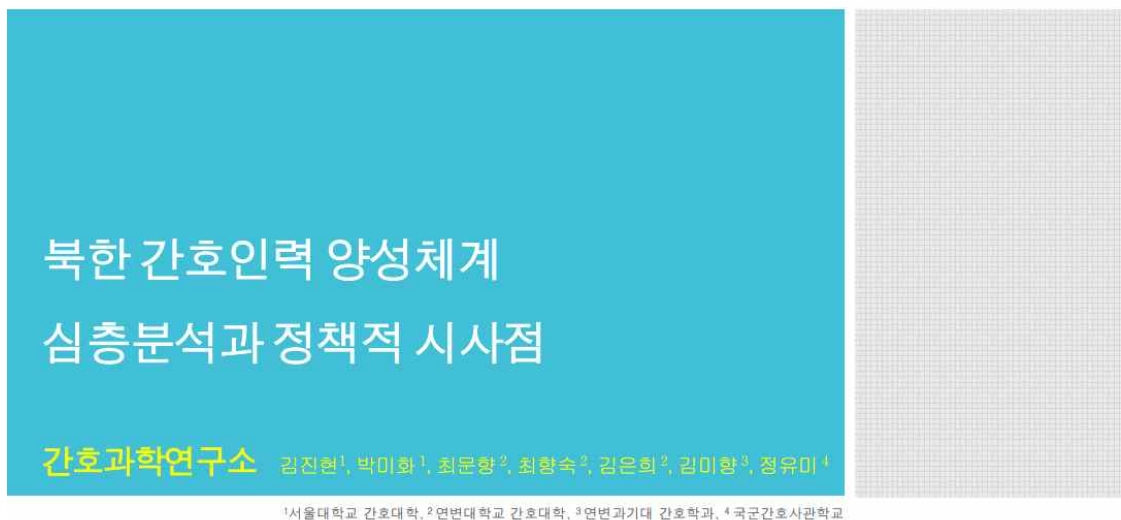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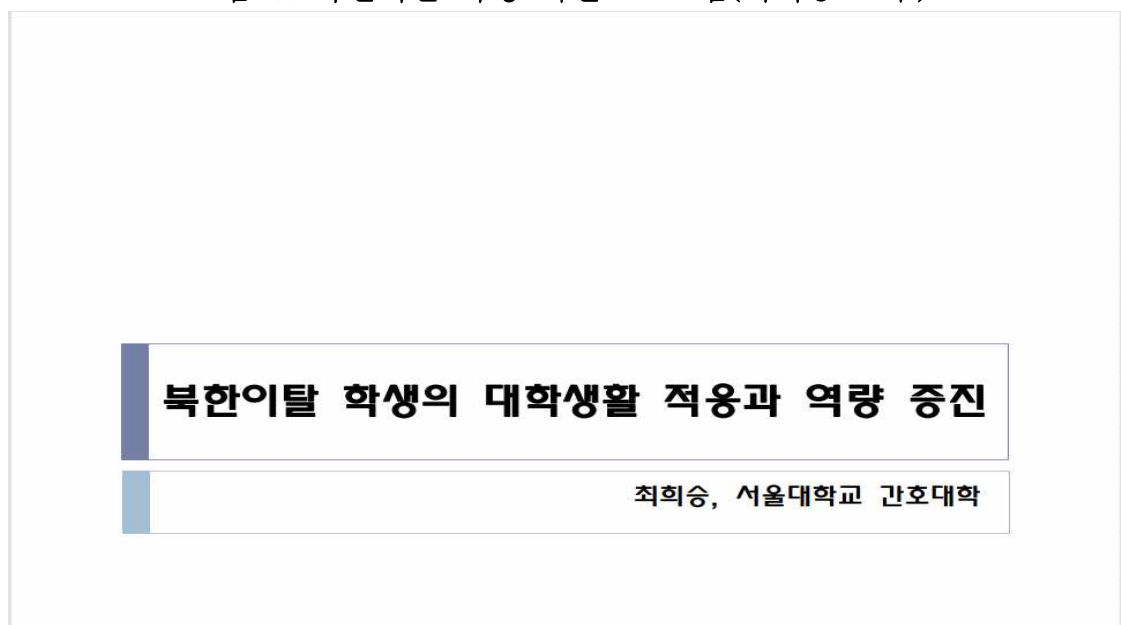


그림 5. 북한이탈 학생 지원프로그램(최희승 교수)



○ 중국 연변대학과의 공동 워크숍 개최(사진 2)

- 일시/장소: '20.12.02.(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414호
- 참석자: XIANGSHU CUI(연변대학교 학장), WENXIANG CUI(연변대학교 부학장), YINJI JIN(연변대학교 실무담당교수)/ 김진현 교수, 최희승 교수, 채선미 교수, 박미화 연구부교수, 이우진, 정나리, Tangjiming 외 2명의 대학원생 참석
- 주제/발표자:
  - 1) 연변대학 조선족과 한족 대학생 두 그룹 간 학업성취도 차이, 중국의 간호대학 교육과정과 한국의 간호대학 교육과정의 비교/ XIANGSHU CUI(그림 6)
  - 2)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진현 교수(그림 7)
- 토의주제: 조선족 대상 간호교육 경험과 통일 후 간호인력 정책 시사점

그림 6. 연변대학 조선족과 한족 대학생 두 그룹 간 학업성취도 차이  
(XIANGSHU CUI)



目  
录

1

延邊大學朝鮮族和漢族大學生之間的  
學業成就感差異

연변대학 조선족과 한족 대학생  
두 그룹간 학업성취감 차이

목

2

中國護理學院的課程設置與韓國護理學  
院的課程設置比較

중국의 간호대학 교육과정과 한국의  
간호대학 교육과정 비교

그림 7. 북한의 간호인력 양성체계 심층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김진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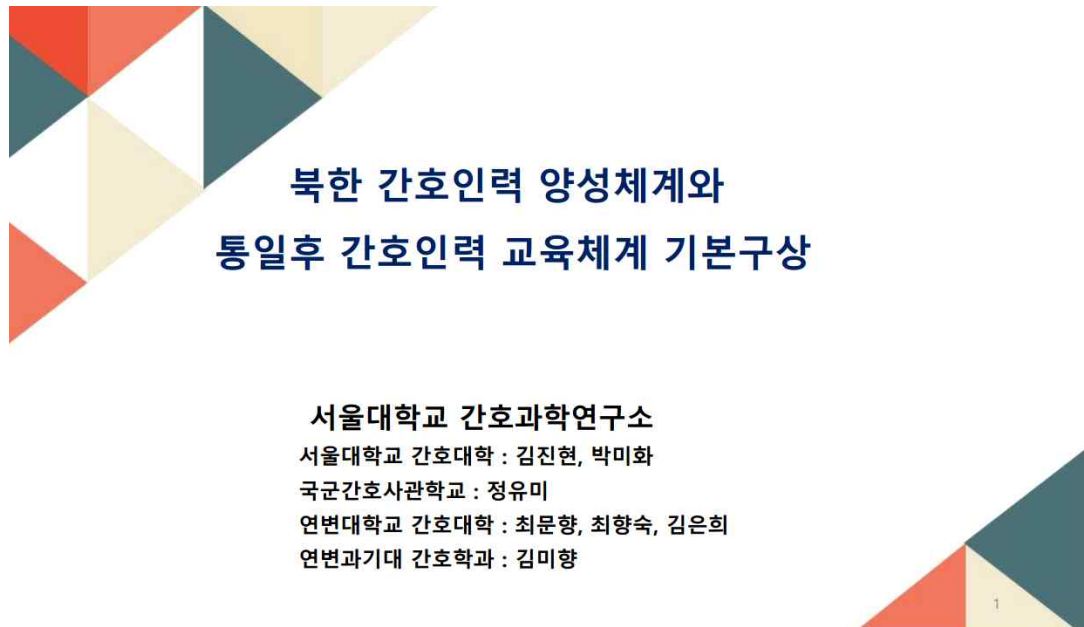


사진 2. 한·중 간호교육정책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샤인센터 견학



한중 간호교육정책세미나 개최 및 학술 교류

- 중국 연변대학과의 공동 워크숍에 대한 성과

-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유사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접경 지역으로서 활발한 교류가 있는 중국 연변지역의 간호대학 교수들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통일 대비 간호연구 협력 기반 조성

- 통일 대비 북한지역 간호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2019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사진 3)

- 일시/장소: '19.12.13.(금)/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대강당
- 주제/발표자: 북한 간호교육체계 분석과 통일후 남북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 정유미 교수(그림 8)

그림 8. 북한 간호교육체계 분석과 통일후 남북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정유미 교수)

### 북한 간호교육체계 분석과 통일후 남북 간호교육체계 통합방안

김진현<sup>1</sup>, 정유미<sup>2</sup>, 최희승<sup>3</sup>, 재선미<sup>4</sup>, 최정숙<sup>4</sup>, 최문향<sup>4</sup>, 김은희<sup>4</sup>, 박미화<sup>4</sup>, 김미향<sup>4</sup>, 이우진<sup>4</sup>, 정나리<sup>4</sup>  
<sup>1</sup>서울대학교 간호대학, <sup>2</sup>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sup>3</sup>국군간호사관학교, <sup>4</sup>중국 연변대학교 간호대학, <sup>5</sup>서울대학교병원 정보화실

#### 연구배경

- ✓ 보건의료 통일 담론에서 배제되어온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
- ✓ 저개발 국가의 경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의료접근성, 의료이용의 형평성 측면에서 간호인력의 역할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
- ✓ 통일 이후 북한지역 간호인력은 자체수급을 전제로 해야 하나 북한의 간호에 대한 이해 부족
- ✓ 통일 대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계 필요

#### 연구방법

- ✓ 연구설계 : 본 연구는 북한 간호교육체계를 심층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
- ✓ 자료수집
  - 포괄적 문헌고찰, 면담조사, 설문조사 통해 자료 수집
  - 북한 간호교육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재택 당시 간호원, 준의 등으로 근무했던 북한 이할주민 9명 면담
  - 북한지역에 한국식 간호교육 적용에 대한 대리지도로서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한 조선족 15명 설문조사
- ✓ 자료분석
  - 문헌고찰과 면담내용을 기반으로 북한 간호교육체계의 재구성
  - 필요시 기존 문헌에서 밝히진 내용 수정
  - 면담과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통일 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의 기본방향 구상

#### 연구목적

- ✓ 북한 간호교육체계 심층분석
- ✓ 통일 한국의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 기본방향 구상

#### 연구결과

- ✓ 북한 이할주민 면담 내용
  - 북한의 간호원은 시·도 간호원학교나 대학병원에 간호원학교의 2년 과정, 군 간호원 양성소 6개월 과정을 통해 양성
  - 교육과정은 비표준화 되어 있으며 정치사상교육, 자연과학, 기초의학 치중 : 수업은 주 6일제이며 오후에는 노동력 동원 활동에 참가
  - 전공 교과목은 간호학개론, 간호학(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고리의학(간단히)
  - 학기 중 농촌활동기간에 막초 채취, 실재로는 정미당에서 구입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임상실습은 2학년부터 시작하며 총 2회, 4개월 시행
- ✓ 중국에서 한국식 간호교육을 받은 조선족 졸업생 응답내용
  - 한국식 교육과정이 중국식 교육과정보다 체계적, 사람중심의 교육
  - 영어교재 사용으로 글로벌 교육 적용 가능
  - 교육내용이 중국의 임상현실과 다르며 교수 부속과 전문성의 차이
- ✓ 통일 이후 남북한 간호교육체계 통합 기본방향
  - 북한지역 간호교육과정 개선, 표준화
  - 북한 차세대 간호교육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남한 간호교육자, 북한이할 간호원, 조선족, 준의 활용
  - 북한 간호원 제한적 자격인정 방안
  - 기존 간호인력 위한 편입과정, 보수교육과정 개발 운영
  - 남한 간호교육과정에 북한 보건의료 실태 고려한 교육내용 반영

〈표 1〉 북한의 간호인력 교육기관 유형과 학제

구분	교육기관	학제	분포
간호원	사도 간호원학교(2000년 이후)	2년	1~2개/사도
	대학병원에 간호원학교		1개/병원
조선원	군 간호원양성소	6개월	1개/군단
	의학전문학교 조선원반	2년	

〈표 2〉 북한 간호교육기관의 입학제도

구분	간호원학교
지원자격	고등중학교(8년) 졸업자로서 졸업고사 응시자
입학시험	과정 : 주원 → 예비시험 → 선발시험 고등중학교 졸업시험, 혁명역사, 구술시험, 체력시험
입학정원	시도단위 간호원학교: 200~300명 내외, 일부지역은 본교 100명 내외, 대학병원 간호원학교: 50명 내외

〈표 3〉 북한 일 간호원학교의 교육과정

구분	교과과정
교양 (1학년)	김일성혁명역사, 김정일혁명역사, 김정숙혁명역사, 사회주의 도덕과 법
경공 (2학년)	영어, 라틴어, 컴퓨터, 체육 해부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미생물학 간호학개론, 간호학(외과,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과) 고리의학(간단히) 기본실습(진료소 1개월~2개월, 주사실기) → 병원실습(2개월~3개월)

〈표 4〉 북한 일 간호원학교의 수업편성

구분	내용
학년당 학급수	시도단위 : 6개 학급, 일부 지역은 본교 2학급, 본교 1학급 대학병원 : 1개~2개 학급
학년당 인원수	일반적으로 40~60명, 본교 20명 내외 대학병원 간호원학교 25명 내외
수업일수	주 6일제(월~토), 또 : 생활동화
수업시간	08:00~13:00 운영(오류 노동력 동원 활동 경가) 과목당 주 1회 수업, 1회 수업시간 90분

#### 결론

- ✓ 물리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남북한 건강과 보건의료 수준의 격차
- ✓ 통일한국에서는 간호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통일외교비용 절감
- ✓ 언제 올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간호교육통합과 간호인력 활용에 대한 전략 수립과 정책적 합의 필요

\* 이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재원으로 통일기반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사진 3. 2019년도 한국간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 북한이탈의료인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19.12.28.(토)~'19.12.29(일)/ 경주 호텔 내 회의실
- 참석자: 김혜성, 류설희(북한이탈의료인)/김진현 교수, 정유미 교수, 박미화 연구 부교수
- 성과: 북한과 남한에서의 간호교육 경험을 공유를 통해 통일 이후 남북 간호인력 양성체계 통합 기본방향 구상에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사점 도출

○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사진 4)

- 일시/장소: '20.02.06.(목)/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217호
- 주제: 통일시대 한국 간호의 비전
- 참석: 교수, 대학원생, 외부인사 포함 30인

- 학술세미나 프로그램 구성

시간	내용
13:00-13:30	등록
13:30-13:50	사회 채선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개 회 환 영 사 김진현 학회 창립준비위원장 축 사 윤성숙 前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3:50-14:50	특 강 노동당 전원회의 평가와 2020년 북한정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15:10-15:50	연구발표 북한이탈학생 지원 프로그램 최희승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통일초기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추계 정유미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15:50-16:40	토론발표 좌장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이현주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강사 이혜경 사단법인 새 삶 대표 전정희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간호사무관 최경일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장
17:00-18:00	창립총회
18:00-18:10	폐회

- 창립총회 프로그램

- 회원모집, 회칙의결
- 회장(김진현 교수), 수석부회장(최희승 교수), 감사 2인 선출

시간	내용
17:00-17:30	<p style="text-align: right;">진행 정유미 창립준비위원회 총무</p> 개회선언.....창립준비위원장 회원점명.....창립준비위원회 총무 회장선출.....창립준비위원장
17:30-18:00	회장인사.....회장 회칙의결.....회장 ‘20년 사업계획보고.....회장
18:00-18:10	폐회.....회장

- 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에 대한 성과

- 통일간호를 준비하는 학술단체 창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 기반 조성하고 간호교육자, 연구자, 학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증진함으로써 통일 준비의 동력 제공
- 회원 54명 모집 완료하였으며 전국구 기반의 임원 구성으로 학회 활성화와 더불어 전국 간호대학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

#### 사진 4.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통일평화간호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세미나 개최 환영사(김진현 교수, 서울대학교)



축사(윤성숙 교수,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특강: 노동당 전원회의의 평가와 2020년 북한정세(조한범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발표1: 북한이탈학생 지원 프로그램(최희승 교수, 서울대학교)



연구발표2: 통일초기 북한지역 적정 일차간호인력 수급추계(정유미 교수, 국군간호사관학교)



패널토론



단체사진

- 「북한 의료현장 의사소통 및 기본간호」 발간 예정('20.3.)
  - 내용: 북한 병원에서의 간호원과 환자 대화 및 기본간호 수록
  - 진행상황: 현재 약 60쪽 분량으로 작성하였으며 편집 진행 중임.
  - 계획: 한·중 협업으로 진행하여 보다 현실감 있는 내용 구성 가능
  - 구성

목차	
<b>I. 북한 의료현장 의사소통</b> 1. 진료 및 병문안 2. 입원 3. 간호과정 4. 병동순회 5. 수술전·후 간호 6. 심리간호 7. 환자의 영양과 식이 간호 8. 약물치료 9. 모성간호 10. 건강교육	4. 관장법 1) 배변관장 2) 보류관장  5. 여러가지 실험검사를 위한 준비 1) 검사 항목 시행시 주의점 2) 소변검사 3) 대변검사 4) 가래채취 5) 위장 방사선검사 6) 간기능검사 7) 초음파검사 8) 담낭, 신장, 기관조영술 9) 흉부, 요추, 복부천자  6. 여러가지 의료기계의 소독법 1) 고압증기소독법 2) 건열소독법 3) 끓임소독법  7. 증상별 간호 1) 호흡기계통 2) 소화기계통 3) 순환기계통 4) 비뇨기계통 5) 주요질병에 대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
<b>II. 북한 기본간호</b> 1. 활력징후 1) 체온 2) 맥박 3) 호흡 4) 혈압 2. 약물투여 1) 피내주사 2) 피하주사 3) 근육주사 4) 정맥주사 5) 정맥 수액주입 3. 수혈방법 1) 직접수혈 2) 보존혈액수혈	<b>III. 부록</b> 1. 의약품의 접수, 보관과 관리법 2. 약초의 효능 및 사용방법



- 책자 발간에 대한 성과

- 국내 최초로 북한 의료현장 대화와 간호교육내용을 수록한 책자로서 북한 간호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통일 한국시대 남북 간호체계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초 자료 제공

**세부과제 2: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

○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 북한이탈 학생 교육 관련 전문가 자문

- 대상: 이음과 배움 이창현 대표, 함께하는 재단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이후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최경일 센터장
- 자문 결과(표 1)

**표 1. 북한이탈 학생 교육 전문가 자문 결과**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학과 박람회)	간호대학생 예비대학 프로그램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북한이탈 학생들에게 입시 관련 정보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대학에 합격한 예비 간호대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증진시키고 대학 생활 적응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li> </ul>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재학생을 포함하여 대학 시를 준비하는 북한이탈 학생 모두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3월 간호대학 입학 예정자(약 6명)</li> <li>▪ 2021년 입시를 준비 중인 고교생 약 10여명을 포함할 수도 있음.</li> </ul>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별 부스를 활용한 학과 및 학과별 진로 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대학 교과과정</li> <li>▪ 간호대학 졸업 후 진로</li> </ul>

	<p>개(북한 이탈 학생의 대학 지원 현황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과 재학생과의 멘토-멘티 만남</li> <li>▪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초청 토크 콘서트</li> <li>▪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설명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학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선행 수업, 특히 간호학 핵심 술기를 경험 해 볼 수 있는 교육 과정 포함</li> <li>▪ 기초 학업 능력 증진: 영어, 컴퓨터 활용 능력 등(탈북민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li> <li>▪ 대학 강의 맛보기</li> <li>▪ 선배와의 만남</li> </ul>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박람회 형식</li> <li>▪ 필요시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속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회기 중일 프로그램으로 운영</li> </ul>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북한이탈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소개서 작성을 시작하는 5월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대학 합격자 1차 발표 시기는 8월경이며, 탈북민 취업지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12~1월 경</li> </ul>
고려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멘토 섭외, 학과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 대학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 진행: 차년도 예비대학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li> </ul>

- 북한이탈 간호대학생/졸업생 면담 조사

- 대상: 간호대학 재학생(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간호대학 졸업생
- 자문 결과 도출 된 내용(표 2)

표 2. 간호대학 재학생과 졸업생 면담 결과

	학생 A(재학생)	학생 B(졸업생)
간호대학 지원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입국 전 4년간 캐나다 거주</li> <li>캐나다에서의 거주 경험 때문에 간호학을 선택하게 됨: 간호학을 선택하는 외국인 친구들의 영향, 간호대학졸업자의 다양한 진로와 해외 취업 특히 국제기구 취업기회에 대해 알게 됨.</li> <li>취업이 용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입국 전 10년간 중국 거주: 중, 고, 대학까지 다님(약학 전공).</li> <li>한국에서도 유사한 의학 계열 전공을 희망하게 됨.</li> <li>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망을 통해 북한의 취약한 의료제도를 경험함.</li> </ul>
입학 전 두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에 대한 걱정(남한 학생과의 경쟁)</li> <li>레포트 쓰기</li> <li>팀 과제(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교우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에 대한 걱정(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li> <li>신분 노출에 대한 염려</li> <li>학과 동기들과의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29세에 1학년 입학)</li> </ul>
입학 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어(원어민 자원봉사자의 도움)</li> <li>EBS 특강(생물 1, 2)</li> <li>대안학교에서 소개한 선생님과 개인과외(고교과정 과학 리뷰)</li> <li>책 읽기(문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단체를 통해 영어, 글쓰기, 생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은 참여하지 않음.</li> </ul>
대학생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학년 : 대학 시스템에 대한 정보 부족, 과제부담</li> <li>3학년 : 첫 임상실습과 졸업 논문 준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업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학년 : 해부생리 과목</li> <li>3학년 : 수업과 실습의 병행</li> </ul> </li> </ul>

대학생활에 도움이 되었던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후배 카톡방: 학교 시스템, 과제 정보 공유, 교재 넘겨주기</li> <li>▪ 학교 지원: 전공 튜터링(선-후배, 동기 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지원은 없었음.</li> <li>▪ 개인적으로 선배 통해 정보 받기</li> <li>▪ 징검다리모임: 현직간호사-대학생 모임</li> </ul>
입학 후 만족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스트레스가 적음</li> </ul>	
선배들의 졸업 후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병원에서 2년 이상 근무 후 2차병원 규모로 이직: 나이, 편견 등의 이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병원에서 1~2년 근무 후 지역 중, 소 병원으로 이직: 적응의 어려움, 태움 문화</li> </ul>
앞으로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시준비</li> <li>▪ 졸업 후 살아남기</li> <li>▪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기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 중)</li> </ul>
북한이탈 대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선행 학습</li> <li>▪ 팀 과제 경험</li> <li>▪ 전공과목 청강(대학 분위기 경험)</li> <li>▪ 멘토-멘티 프로그램</li> <li>▪ 스트레스 해소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과학(생물 등)</li> <li>▪ 영어</li> <li>▪ 글쓰기(레포트 등)</li> <li>▪ 팀 과제 경험</li> <li>▪ 발표자료 만들기(ppt)</li> </ul>

○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학과 박람회) 개발 및 시행

- 일시/장소: '19.05.18(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대상: 간호학과를 포함하여 4년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자 하는 북한이탈 학생들과 전공별 학과 소개 도우미와 멘토, 교육 관계자
- 내용 및 일정: 프로그램과 배포할 책자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표 3과 같음.

표 3. 진로탐색 멘토-멘티 학과박람회 세부 일정표

시 간	일 정	장 소
10:00~10:20	등록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제 2 연구동 강당
10:20~11:10	<b>1부. 환영사와 강의</b> - 환영사(최희승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환영사(고봉식 장로/ 내수동 교회) - 북한이탈 학생들을 위한 진로/ 전공 선택과 대학입시(이창현 대표/ Hana Ministry, 이음과 배움)	제 2 연구동 강당
11:10~12:30	<b>2부. 학과/ 전공박람회</b> - 학과 박람회 소개, 이용안내 - 진로/ 직업상담 동시진행 - 자유로운 부스 방문, 학과/ 전공 상담, 질의응답 (최소 3개 이상의 전공을 방문하도록 권장)	제 2 연구동 103호 104호 110호
12:30~13:20	점심식사 및 조별 교체 - 관심분야 모듬별 식사	제 2 연구동 103호 110호
13:20~14:20	<b>3부. 대학생활 체험</b> - 모듬별 학교소개 및 대학생활 안내 - 시간표 작성 실습	제 2 연구동 104호
14:20~15:00	마무리	

-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성과:

- 북한이탈 학생, 교육 관계자, 대학 멘토를 포함하는 자원봉사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함(사진 5).
-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석한 학생들 중 20여명이 간호학 전공 희망자였음. 간호학 전공 희망자를 위해 간호대학 교수 2인과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들 10여명이 참석하여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짐.
- 간호학 전공 희망자를 위하여 “간호 전공 백과사전”을 100부를 제작하여 당일 행사 참석자 뿐 아니라 대안학교 재학생이나 간호학 관련 자료집을 원하는 북한이탈 학생들에게 배포함(그림 9).

사진 5. 진로탐색 멘토-멘티 학과박람회



그림 9. 간호 전공 백과사전

**2019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대학입시·학과전공 박람회**

25개 학과 대학생들과 1:1로 만나 희망전공 및 대학생활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시간!  
서울대 간호대와 협력하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박사과정 간호사들이 간호학 전공안내 및 1:1 상담

**일시 : 2019년 5월 18일(토) 10:00~15:00**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제2연구동**  
(지하철 4호선 혜화역 3번출구 도보 10분)

- 최근 육상군 주요 육군제 대학 북한이탈주민전형 경쟁률과 입시 특성을 알고 지원 전략에 대해 강의
- 실제 북한이탈주민전형으로 합격한 선배, 남한 출신 대학 선배들의 사례를 보고 듣는 토크쇼
- 참석자에 한해 ①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학과전공자료집 ② 북한이탈주민지원전형 입시 핸드북 ③ 서울대 간호대 실명 간호학 전공 길라잡이 선물 증정

**신청** [이음과배움.org](http://이음과배움.org) (connectlearn.org)

서울대학교에서 문의: 02-3789-3125

공동주최: 

나이팅게일과 함께하는

**간호 전공 백과사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IPUS 인도-한국-미국-일본-유럽-아프리카

**목차**

**1장 간호와 간호사**

- 간호란 무엇일까?
- 간호사의 역할
- 간호사의 근무지
- 간호사가 되는 법
- 간호사의 전망
- 전문간호사제도

**2장 간호대학의 모든 것**

- 간호대학 입시
- 간호대학 수업
- 간호대학 실습
- 간호대학 졸업

**3장 자주 묻는 질문**

- 간호사 관련
- 간호대학 관련

**부록 유용한 정보**

- 나를 이해하는 시간
- 참고할 만한 사이트
- 참고문헌

○ 2019년도 다문화건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사진 6)

- 일시/장소: '19.12.07.(토)/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103관 106호
- 주제/발표자: 북한이탈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 증진 프로그램/ 최희승 교수(그림 10)

그림 10. 북한이탈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 증진 프로그램 (최희승 교수)

##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 프로그램

최희승<sup>1,2</sup>, 채선미<sup>1,2</sup>, 김진현<sup>1,2</sup>, 정유미<sup>3</sup>, 박미화<sup>4</sup>, 정나리<sup>1</sup>, 이우진<sup>1</sup>  
 서울대학교 간호대학<sup>1</sup>,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sup>2</sup>, 국군간호사관학교<sup>3</sup>, 서울대학교병원 정보화실<sup>4</sup>

### 연구목적

- 학령기에 해당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는 북한이탈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요구도 증가
- 증가하는 진학률과 함께 북한이탈 대학생의 중도탈락률도 높아 재적성의 20~30%가 유학중이거나 제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졸업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이탈 대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높은 중도탈락률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 지원체계와 역량 증진 프로그램이 전무함
- 특히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입학 이전 예비 학교나 전환기 교육과정 등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
- 본 연구는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 증진도 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시행됨

###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 (학과 박람회)

### 연구방법

-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 증진을 제도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북한이탈 학생 교육 전문가와 북한이탈 취업지원센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함
- 면담 결과와 북한이탈 학생 지원 단체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학과 박람회)과 간호 대학 합격생들을 위한 예비 대학 프로그램 개발 하여 시행함

### 연구결과

- 전문가 자문: 북한이탈 학생 교육 전문가 및 실무자
- 진로탐색 멘토-멘티 프로그램: 학과 박람회(2019.5) - 북한이탈 학생 100여명과 교육관계자 30여명이 참여 하였고, 이들 중 20여명은 간호대학 지원생이었음
- 북한이탈 주민 전형 안내, 학과/전공 선택 안내, 전공 및 학과별 부스 운영, 진로/직업 상담, 간호학 전공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학과 전공 자료집과 간호학 전공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함
- 예비 대학 프로그램(2019.10 ~ 2020.1) - 탈북민 취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간호대학 합격생 6명 을 대상으로 예비 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예비 대학 프로그램은 탈북민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영어, 기초과학, 간호학 전공 관련 강의 프로그램과, 본 연구팀이 주관하는 간호학 커리큘럼 및 진로 안내, 핵심 간호 술기 교육, 긍정성리 강점 프로그램, 간호대 및 병원 견학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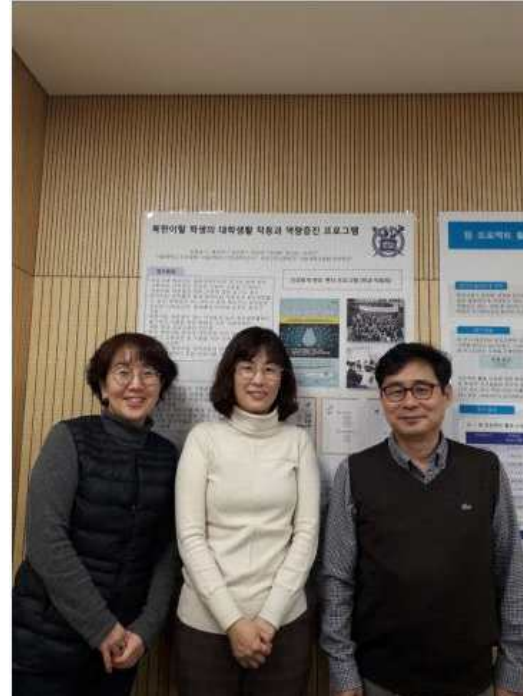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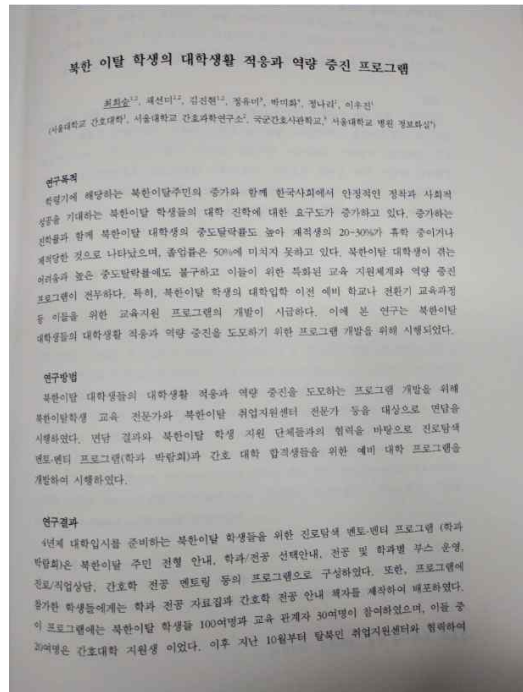
### 결론

- 북한이탈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요구도와 실행가능성을 보여줌
- 북한이탈 학생이 남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학생활 적응이 우선되어야 함
-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 증진도 모 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남한에서 간호 인력으로 성장한 북한이탈 간호 대학생 은 통일 이후 핵심 의료 인력으로서 의료발전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 중일문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 된 결과임



사진 6. 2019년도 다문화건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일시/장소: ‘20.01.17.(금)~‘20.01.31.(금)까지 3회기에 걸쳐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시행함.
- 대상: 2020년 3월 입학 예정인 예비 간호 대학생 5명
- 프로그램 개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이탈 예비 간호대생의 요구도와 이들을 교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집함.
  - 간호학과 교과과정 소개
  - 강의 및 실습: 대학 강의 맛보기 경험을 위해 교과목으로 1, 2학년 간호학 전공교과목 중에 필수 교과목으로 수강하게 될 간호학개론, 인간과 건강, 기본간호학의 세 교과목을 선정함. 간호학개론은 간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선정함. 인간과 건강은 북한이탈 예비 간호대학생들이 대학 입학 후 수강하게 될 영어강좌를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영어강좌 진행을 계획함. 기본간호학은 강의와 술기실습으로 구성하고,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술기들(예, 근육주사, 정맥주사)과 핵심적인 기본 술기 중심으로 구성함.
  - 그룹 활동: 긍정심리 강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자의 강점 찾고 앞으로 대학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습효능감과 자존감을 증진하고자 함.
  - 멘토-멘티 프로그램: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로 취업 중인 북한이탈 선배를 멘토로 초청하여, 간호대학생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된 질문과 대답의 시간을 갖도록 함.
  - 간호대학과 대학병원 투어: 간호대학의 간호역사박물관과 시뮬레이션 센터, 다양한 간호학 실습실 등의 투어를 계획함. 또한 대학병원 시설도 견학하도록 함.
- 최종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체적 일정: 최종 프로그램은 강의(간호학 교과과정 및 진로, 대학 강의 맛보기, 입학 전 준비사항 안내 등), 학습 효능감과 자존감 증진을 위한 그룹 활동, 멘토-멘티 상담, 병원 방문 및 현장 간호사와의 만남 등이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표 4와 같음.

표 4. 예비대학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제1회 프로그램 (1/17, 금요일)			
시간	활동내용	담당자	활동장소
09:30-10:00	등록	정나리, 이우진	디브리핑 룸
10:00-10:10	환영사 예비대학 프로그램 소개	최희승 교수	
10:10-10:50	특강1: 간호학 커리큘럼 소개	최희승 교수	
10:50-11:30	특강2: 간호대학 졸업 후 진로	최희승 교수	
11:30-13:30	점심식사 (병원 식당 & 대한외래)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정나리, 이우진	서울대학교 병원
13:30-14:30	간호대학 투어	최희승 교수	시뮬레이션센터 간호대 박물관 구관 실습실 OCE
14:30-16:30	기본간호학 강의 및 실습 I (심폐 소생술 및 제세동기 적용)	채선미 교수 정나리, 이우진	기본간호학 실습실 샤인센터
16:30-17:00	Q & A, 평가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정나리, 이우진	디브리핑 룸

제2회 프로그램 (1/20, 월요일)			
시간	활동내용	담당자	활동장소
09:30-10:00	등록	정나리, 이우진	디브리핑룸
10:00-11:30	멘토와의 시간	멘토	디브리핑룸
11:30-12:30	점심식사 (도시락)	채선미 교수, 최화승 교수, 정나리, 이우진	디브리핑룸
12:30-13:50	긍정심리강점 프로그램	이우진	디브리핑룸
13:50-14:00	휴식		
14:00-14:50	샘플 강의 I (간호학 개론)	정유미 교수	디브리핑룸
14:50-15:00	휴식		
15:00-16:30	기본간호학 강의 및 실습 II (활력징후 측정, 경구투약)	채선미 교수, 최화승 교수, 정나리, 이우진	기본간호학 실습실
16:30-17:00	Q & A, 평가	채선미 교수, 최화승 교수, 정나리, 이우진	디브리핑 룸

제3회 프로그램 (1/31, 금요일)			
시간	활동내용	담당자	활동장소
09:30-10:00	등록	정나리, 이우진	디브리핑 룸
10:00-12:00	기본간호학 강의 및 실습 III (근육주사)	채선미 교수 정나리, 이우진	기본간호학 실습실 샤인센터
12:00-13:30	점심식사 (장소 미정)		
13:30-14:20	샘플 강의 II (인간과 건강)	최희승 교수	디브리핑룸
14:20-14:30	휴식		
14:30-16:30	기본간호학 강의 및 실습 IV (정맥주사)	채선미 교수, 정나리, 이우진	기본간호학 실습실 Skills lab, 샤인센터
16:30-17:00	소감발표 및 시상식, 단체사진촬영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 정나리, 이우진	디브리핑룸
17:00-18:00	FGI	최희승 교수, 이우진	디브리핑룸

-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성과

- 참석자: 서울과 충청지역 5개 간호대학 합격자 5명, 간호대학 3인, 간호대학 대학원생 2명, 북한이탈 현직 간호사 1인
- 평가: 프로그램에 참석한 5명의 예비 간호대학생들 모두 3회기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수료증을 수여함(사진 7).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실제로 기본간호학 핵심 술기를 경험하고 술기능력을 습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높은 만족감과 자신감을 표현함.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프로그램 평가와 함께 차년도 예비 대학 프로그램에 관해 제안할 점과 보완할 부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강의록 및 학생 교육 자료는 그림 11과 같음.

## 사진 7.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 및 수료증 수여



그림 11. 강의록 및 학생 교육자료

### 서울대 간호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건강증진/유지	질병간호 전략	전문직 개발
일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전략	일반 질병간호 전략 (기초간호과학, 기본간호)	전문직 개발 I (간호철학, 윤리)
개인과 가족에서 건강증진/유지	개인의 임상간호 개인의 급성간호    개인의 지속적인 간호	전문직 개발 II (간호연구, 통계)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유지	가족간호    지역사회 간호	전문직 개발 III (간호정책, 관리, 정보)

### 간호사의 다양한 진로 (1)

**병원 간호사**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합니다. 분야별로는 일반 병동, 외과, 수술실, 투석실, 중환자실, 응급실, 산생아실, 여성 건강, 정신, 감염관리, 안방 등이 있습니다.

**보건교사**

초·중·고등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하여 보건교육,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학교 보건 사업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간호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보건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국공립학교에 임용하려면 교원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보건 간호사**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정신보건, 모자보건, 노인 보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보건진료 직할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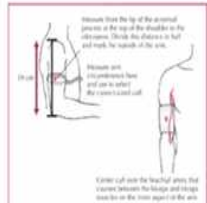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일차진료서비스 담당. 진찰, 처치, 환자 후송 등을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배둔근

- 둔부의 두꺼운 근육중
- 좌골신경과 혈관이 가까이 있어 주의해야 함
- 3세 이전 아동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 혈압측정 팔의 높이
- 심장과 같은 높이
- 커프 사이즈
  - 길이: 상완둘레의 80% 이상
  - 너비: 상완둘레의 40% 이상
- 커프 공기 팽창/수축 속도



Place the top of the aneroid gauge at the top of the shoulder on the ulnar side. Check the distance to heart and mark for width of the arm.

Place on the brachial artery and use a width that covers 40% of the arm.

Center cuff over the brachial artery that courses between the biceps and triceps muscles on the inner aspect of the arm.

○ 북한이탈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경험 탐색을 위한 사례연구

- 목적: 북한이탈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을 위해 개발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탐색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며 추후 북한이탈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최종 완성하기 위함.
- 대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탈북민 취업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개발한 예비대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들 중 간호대학에 합격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5명
- 연구방법:
  - 연구 설계: 북한이탈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과 역량증진을 위해 개발한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서술적 질적 연구임.
  - 연구대상 모집방법: 탈북민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목적적 표본추출방식 이용.
  - 윤리적 고려: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시작 전 '19. 10월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IRB No. 1910/003-009)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익명성을 존중함.
  - 자료수집 시기 및 방법: 자료 수집은 총 3회에 걸쳐 이루어 짐(예비대학 프로그램 시작 전, 예비대학 프로그램 종료 후, 대학 입학 후 4월 경). 자료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인 인터뷰를 통해 수집할 예정임.
  - 자료수집 절차 : 면담 이전에 연구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가 선정요건,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방법에 대하여 설명문 및 동의서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구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탈북민 취업지원센터 회의실과 학교 강의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면담의 주요 질문은 간호대학 지원 동기, 간호대학 입학 전 두려움이나 기대감, 예비대학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의 네 개 주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짐. 면담 진행은 주연구자가 담당하였으며, 다른 연구자 1인은 진행 보조자로서 구술내용 녹음과 참여자의 면담내용 중 중요사항을 메모하였고, 면담 종료 후 연구자와 보조자가

면담내용을 디브리핑함.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19. 12월~ '20. 1월까지 이루어졌고(2회;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 전, 프로그램 종료 직후), 면담 소요시간은 회당 60분~90분이었음. 추후(대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종료 후) 1회 개인 인터뷰를 진행하여 대학생활 경험 및 적응, 예비대학 프로그램의 효과 등에 대해 평가할 예정임.

- 자료 분석방법 : 매 면담 종료 후 분석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자료 분석은 자료포화 후 전사된 내용과 현장 메모를 사용하여 이루어짐. 주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에 따라 분석을 실시함. 분석된 자료는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간 확인과정을 거침.

- 도출된 결과:

- 간호대학 지원 동기
  - 1)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학력, 인맥, 안정된 직업에 대한 갈망
  - 2) 북한에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과거의 개인적 경험
  - 3) 한국에 정착하기 전 해외 생활을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과 간호사로서 해외에 거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 간호대학 입학 전 두려움 혹은 기대감
  - 1) 학업에 대한 걱정 : 기초 지식의 부족, 영어에 대한 두려움, 팀과제 시 역량 부족, 국가고시에 대한 두려움
  - 2) 대인관계에 대한 걱정 : 신분 노출 후 차별, 나이 차이로 인한 갈등, 대학에서 친구 만드는 방법
  - 3) 소속감에 대한 기대 : 대학생으로써의 혜택, 동아리 활동
- 예비대학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내용
  - 1) 학업 : 영어, 기초과학, 기초간호, 글쓰기, 발표자료 준비
  - 2) 진로 프로그램
  - 3) 멘토-멘티 프로그램
  - 4) 대학생활 경험 : 청강, 견학



5) 대인관계 증진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 예비대학 프로그램 참여 경험

- 1) 간호 술기를 실습하면서 이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됨.
- 2) 멘토와의 시간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 졸업 후 병원 생활 등에 대해 알게 됨.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멘토를 만난다면 공부법, 시험준비 방법, 대학생활에 필요한 팁 등 더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3) 간호학 샘플 강의를 통해 대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영어 강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도 됨.
- 4) 영어, 기초과학, 기초간호학을 공부하기에는 예비 대학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되며,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기를 기대함.

- 결론 및 제언:

- 예비대학 참여자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개발한 결과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았음.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차년도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예비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 학업능력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탐색은 입학 후 중간고사 이후에 진행될 3차 인터뷰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본 사업은 북한이탈 대학생, 특히 간호대학 지원자들에게 특화된 역량 강화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음. 증가하는 간호대학 지원률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높은 중도 탈락률과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은 지속 되어야 함.

## 5. 사업평가

### ○ 사업의 적절성

- **세부과제1:** 통일 한국에서 남북한 건강격차 감소를 위한 일차보건의료 제공의 핵심이 될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아래 1차년도('18년) 북한지역 일차간호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수급 연구 사업에 이어 2차년도('19년)에는 북한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분석하여 통일 후 간호교육체계의 기본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체계성과 적절성이 인정됨.
- **세부과제2:** 지금까지 대학생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던 북한이탈학생들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이들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통일기반구축 사업의 취지에 매우 적합함.

### ○ 사업의 효율성

- 사업에 투입된 비용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학술적 성과가 높고, 통일 대비 간호정책을 다수 도출하였으며, 학회 창립, 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북한이탈 예비대학생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호계가 통일을 준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으므로 효율성이 매우 높음.

### ○ 사업의 영향력

- 통일 이후 북한 간호인력과 남한 간호장교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최초로 도출하였으며, 북한 간호인력 활용의 효과성을 높이고 향후 남북한 간호체계 통합을 위한 교육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통일 준비 방안의 구체성을 한 단계 높임.
- 대학생 적응과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이탈 대학생들의 높은 수요도와 기대를 확인하고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사업의 결과를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학계에 발표함으로써 간호계의 관심을 촉구하고 통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함.

### ○ 사업의 발전가능성

- 통일 한국의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인력의 활용 필요성이 매우 높고 이를 위한 준비가 시급함에도 그동안 간호를 중심으로 한 통일 담론은 이루어진 적이 없음.
- 본 사업은 간호인력에 대한 정책연구와 북한이탈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실험을

통해 간호를 통일준비의 중심으로 이끌어 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지금까지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 해결 위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그 효과는 매  
우 클 것으로 예상함.